

재미있는 배와 복숭아 이야기



중랑캠핑숲 공원에는 배나무와 복사(복숭아)나무로 이루어진 과수원이 있어요~
매년 4월이면 공원 산책로를 따라 핀 하얀 배꽃과 연분홍의 복숭아꽃이
활짝 피어나 우리들을 맞이해주는데요~ 그 꽃들이 얼마나 이쁘게요~



배(나무)하(이)!

나는 단맛과 시원한 맛으로 사과 다음으로 가장 많이
사랑받고 있는 과일이야! 중랑구에서는 먹골 배로 굉장히
유명하지~

보통 내가 맛있는 배로 탄생하기전에 이렇게 하얗고 뽀얀
얼굴을 가진 꽃을 피워.

안녕~ 나는 복숭아 나무!

나는 비타민과 과즙이 아주 풍부한 과일이야!
나를 먹으면 3천년을 산다는 아주 오래된 이야기가 있어!
나는 복사나무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는데, 얼굴은 하나 인데
이름은 서너 개인 셈이야~ 분홍분홍 한 내 얼굴 어때?
정말 예쁘지?!
참, 너의 몸에도 내가 있는데 어디에 있는지 한번 찾아 볼래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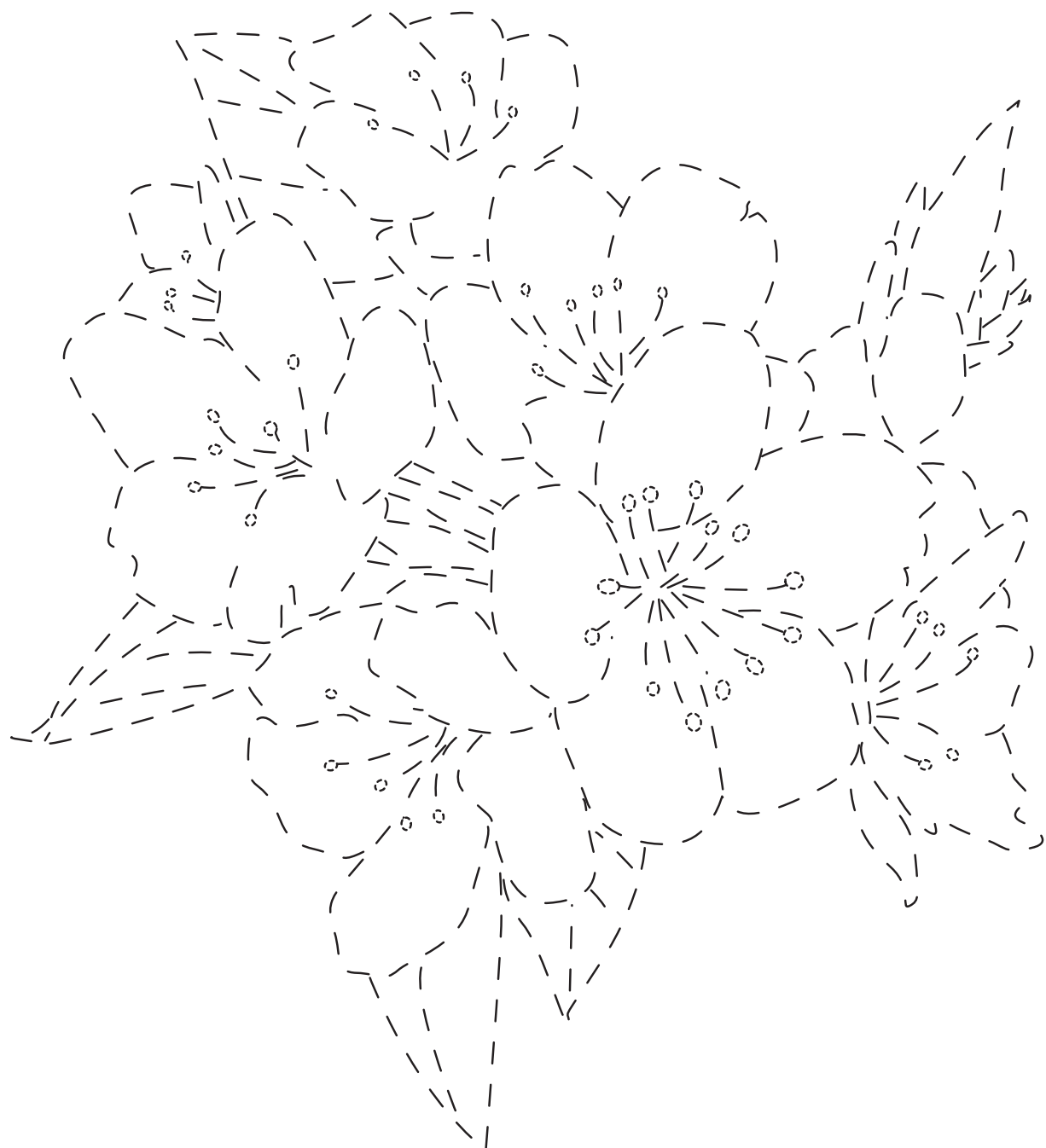


잠깐만! 상식 챙겨!

1. 배꽃과 복사꽃 잎의 개수는 몇 개일까?
2. 배와 복숭아의 씨앗 개수는 각각 몇 개 일까?



나의 아름다운 꽃잎을 따라 그려보고
너만의 색으로 표현해줘!



정답공개!

1. 꽃잎은 각각 5개 2. 씨앗의 갯수는 배 6개 복숭아 1개

만든이 : 중부공원녹지사업소 생태강사 유재홍, 중부공원녹지사업소 코디네이터 김민숙